



기본에 충실한 삼금농장 박정석 사장

**돼지요? 기본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까?**

지난 80년대 중반 군제대 후 22세의 젊은 나이에 바로 양돈업에 뛰어들어 15년 가까이 돼지와 함께 지내온 박정석 사장(37세)은 양돈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농장을 열심히 가꾸어 나가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에 위치한 삼금농장은 연천군과 파주시가 거의 맞닿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운수업과 함께 농장을 경영하시던 부친에게서 본격적으로 농장을 인수받은 것은 지난 93년으로 이때부터 경영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고 농장을 도맡아 경영하고 있다. 농장규모도 모돈 170두 정도로 농장을 본격적으로 인수받은 후부터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화를 위해 사육두수를 꾸준히 늘려왔다.

삼금농장은 비육사 4동, 분만사 1동, 자돈사 1동, 중부사 1동으로 전체 2,000두 가량의 돼지를 박 사장과 3명의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중 비육사 2동은 스크레퍼 시설을 해놓은 상태이며, 나머지 돈사들은 기존

의 재래시설로 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군사 훈련 지역으로 농장시설을 늘리기가 어렵고 신축하기가 어려워 돈사시설이 대체로 노후가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수해 주고 있으며, 돼지가 생활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는데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분뇨처리는 예전부터 분과뇨를 분리하여 처리를 하는데 분의 경우는 인근의 파주시 교남면 어유지리 동산에서 전량 가지고 가며,뇨의 경우 저장조를 크게 지어놓아뇨를 부숙시킨 후 농장 주변의 부지에 액비로 살포하여 처리하는 등 분뇨처리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처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태라고 한다. 주변에도 가구는 9가구 밖에 되지 않는 농가들이 대부분 가축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양돈을 하는 데는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가 튼튼한 양돈인 박정석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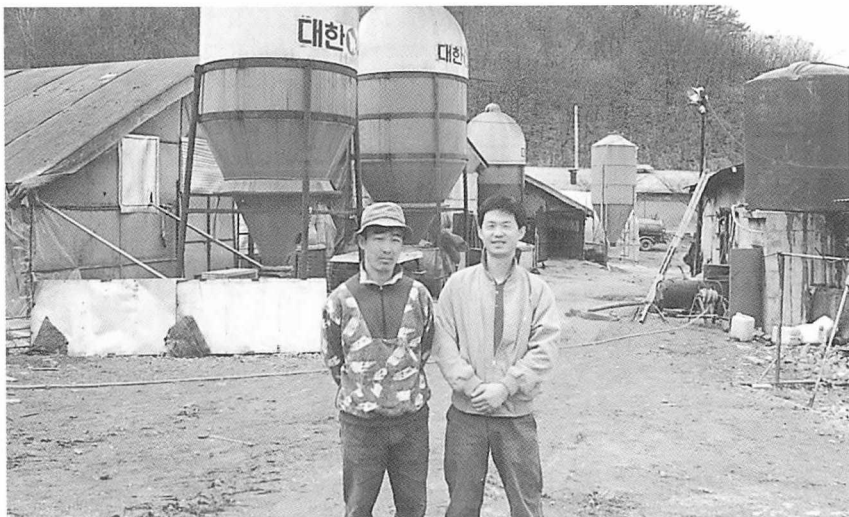
농장을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유지시켜 나가려면 무엇보다 농장여신 상태가 건전해야 한다. 물론 일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분야에서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유독 축산분야에서 만큼은 이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닌 듯 싶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삼금농장의 경우 사료에 대해서만 2개월 여신만 깔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아무런 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박 사장이 얼마나 경영에 있어서 세심하게 처신을 해왔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박 사장은 농장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철저하리만큼 경영계획을 세워 경영자금의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박 사장은 4년 전부터 한별피그 클리닉(대표 : 이재춘 원장, 한국양돈컨설팅 그룹)과 계약을 맺고 농장 전반에 걸친 사양관리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 컨설턴트 자문을 구하여 보다 좋은 방향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해결하는 등 농장 전반에 걸친 모든 관리사항을 꼼꼼히 살펴 남들이 넘기기 쉬운 세세한 부분까지도 빠지지 않고 직접 체



▲농장을 배경으로 농장장과 함께 선 삼금농장 박정석 사장

▶삼금농장은 노처리를 저장액비화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액비는 인근의 6천평이 되는 밭에 살포되고 있다.



▶고르게 자라고 있는 삼금농장의 육성돈



크하고 있다. 또한 기회가 닿는대로 세미나 등 교육프로그램에도 참가하여 신기술을 배우는데도 게을리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유행성 설사(PED)에 걸려 PSY가 20.7두 밖에 안 나왔지만 ...

삼금농장의 전반적인 관리형태를 보면 사양관리는 주간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올인 올라웃도 자돈사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시설을 보수하여 전 돈군에 대해서 확대 실시할 것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완벽한 백신접종과 철저한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는 한 분야도 빠뜨리지 않고 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98년 1년 동안의 삼금농장 PSY를 보면 20.7두를 나타내고 있는데 박 사장은 지난해 전반기에 돼지들이 유행성 설사에 감염되어 농장성적이 푹 떨어져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꾸준히 성적을 높여 PSY가 지난 해 연말에는 거의 26두를 육박하는 등 질병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 농장성적을 만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시설이 낙후되어 언제 또 설사병이 재발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박 사장은 농장시설 보수 등 돈사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농장관리를 하고 있었다.

특히 박 사장은 모돈의 산차구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산돈이 생기지 않도록 모돈의 산차구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1산에서 3산차 모돈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농장생산성 향상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은 빠짐 없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성실한 자세로 양돈에 계속 임할 터

박 사장은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농장을



▲박정석 사장(37세)은 지난 80년대 중반 22세의 젊은 나이에 양돈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성실하게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계속 관리해 오면서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한다. 물론 지난 98년의 IMF체제에서 약간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사료여신이 기존보다 두달 정도 더 늘었던 것 이외에는 그리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즉 기본에 충실하고 농장관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가 현재의 박 사장이 그리 큰 어려움 없이 농장경영에 몰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만 삼금농장이 위치한 지역이 군사훈련지역으로 돈사의 신축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 시설분야에 더욱 세심한 관리와 보수를 통해서 짜임새 있게 농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모돈 170두 정도의 규모를 200두로 늘려 더욱 알차게 경영하겠다고 말하는 박 사장은 소박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양돈인이기를 바라고 있다. **양돈**

〈취재 : 이병석〉